

# 2016년 6월 18일 지방직 한국사 기출 해설

이선주 교수 제공

1. ①

박스안에 내용은 신석기 시대 내용이다.

② 청동기 시대

③ 청동기 시대

④ 청동기 시대 말 철기 사이 연맹 왕국

2. ④

박스안에 내용은 통일신라의 민정문서의 내용이다.

④에서 전시과는 고려시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제도이다.

3. ①

괄호에 들어갈 것은 고려의 특수 행정구역 중에 향 부곡, 소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거주하는 자들은 천민이 아니고 양인이다. 하지만 일반 양민과 달리 차별받는 양인이다.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도 없고, 일반양민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

4. ①

박스안에 내용은 대동법의 내용이다. 대동법은 광해군때 처음 실시하였고 전국적 실시하는데는 양반지주의 반대로 100년이나 걸렸다.

②는 균역법 : 영조

③ 균역법에서 2필 내던 것을 1필로 깎아 주니, 부족한 세금의 양을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1결당 2두를 거두었다.

④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흉년과 풍년에 관계없이 4두로 고정한 것이다.

5. ③

박스안은 해방 후 남한의 농지 개혁의 내용이다. '3정보'라는 것을 보고 알았음.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에 제정,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의거 1950년에 실시한 것이다. 당시 농지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는 첫째, 8·15광복 직후의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주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데 있었다.

소작지도 사실상 농지개혁에 준하는 조건으로 양도되었음을 볼 때, 농지개혁은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촌사회의 소작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을 해소하고 사회적·정치적 안정과 농촌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6. ③**

㉠ 살수대첩 612년

㉡ 사비천도 성왕때 538년

㉢ 신라 율령 반포 법흥오아 520년

㉣ 대가야 멸망 진흥왕 562년

순서는 ㉢-㉡-㉣-㉠

**7. ②**

박스안에 것은 ‘은병’이라는 것을 보고 숙종때 임을 알았다.

1104년(숙종 9) 동북면행영병마도통(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여진정벌에 나섰다가 패하고 돌아온 윤관(尹瓘)의 건의에 따라 강력한 기병대의 편제를 갖춘 여진족에 대항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설치 동기는 당시 이군육위(二軍六衛)를 기간으로 하는 기존의 군사체제가 붕괴되어 대규모의 군사동원이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

① 12목의 설치는 성종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설치함

고려가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마련하고 국가 기반이 확립된 것은 성종 때였다. 특히 983년 전국에 12목을 설치해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③고려·조선 시대 중앙 정부에 의해 토호의 자제 중에서 인질로 서울에 머무르게 한 제도이다. 이는 고려 태조(왕건)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의 독자적인 기반을 효과적으로 억누르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통제 겸 회유의 필요성에서 사심관 제도와 함께 기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④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고려 광종때 과거제도를 후주의 쌍기 건의로 받아들인다. 비로서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는 것이다.

### 8.③

고려 때 ‘지눌’에 대한 것인데 아래의 설명과 같다. 먼저 중국의 당의 종밀 이야기부터 해보면.....중국 당의 종밀은 다섯 가지의 돈점설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단계를 밟아서 차례대로 닦아 일시에 깨닫는 점수돈오(漸修頓悟),
- ② 닦기는 일시에 닦지만 공행(功行)이 익은 뒤에 차차 깨닫는 돈수점오(頓修漸悟),
- ③ 차츰 닦아가면서 차츰 깨닫는 점수점오(漸修漸悟),
- ④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 번뇌와 습기를 차차 소멸시켜가는 돈오점수(頓悟漸修),
- ⑤ 일시에 깨치고 더 닦을 것이 없이 공행을 다 이루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고려 중기의 지눌(知訥)은 돈오점수설을 채택하여 우리 나라 선종에 정착시켰다. 그는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번뇌가 없고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므로 돈오라 한다.”고 하였고, 또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서 의정(疑情)을 대번에 쉬고 스스로 자긍(自肯)하는 데 이르면 곧 수심인(修心人)의 해오처(解悟處)가 되나니, 다시 계급과 차제가 없으므로 돈오라 한다.”고 하였다.

③ 수선사는 고려시대 보조국사(普照國師)지눌(知訥)에 의해 이루어진 혁신불교적인 신앙결사(信仰結社)의 단체명인 동시에 사찰의 명칭. 1190년(명종 20) 공산(公山: 지금의 대구광역시 팔공산) 거조사(居祖社)에서 결성되었다. 초명은 정혜사(定慧社)이며 고려 말기에 송광사(松廣寺)로 개칭되었다. 고려 후기에 결성된 수선사는 고려 중기의 불교를 반성 극복하면서 성립되었다.

①은 의천,

②의상,

④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가 불교의 여러가지 이론(異論)을 10문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

불교의 각 종파간의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불교적 논리를 집대성한 원효사상의 총결산적인 저술이다. 부처님이 지향한 이론이 무쟁

(無諍)의 세계임에 비하여 원효가 지향하는 이론이 화쟁임을 증명하고 있다.

## 9. ③

‘속대전’을 보고 영조임을 알았다.

영조는 탕평파를 이용, 노론의 일방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조낭관의 통청권(通淸權)과 사관의 천거권을 폐지하는 등 탕평에 예의 주력하였다. 서원에 대해서도 그것이 노론, 소론, 남인 사이의 분쟁을 유발하고 정국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서원의 건립에 따른 시비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탕평파의 협조를 얻어 1714년 이후 건립된 서원은 물론 사우와 영당 등의 모든 제향 기구(祠院)를 모두 없애버렸다.

① 신해통공은 1791년(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蔡濟恭)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 : 시전상인들만의 특권 상행위를 비시전상인들에게도 허용한 정책).

② 삼정이정청은 1862년(철종 13) 5월에 설치한 관서이다 이는 진주 민란(임술농민봉기) 이후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치

④ 고종 흥선대원군 때

원래 사창제는 1428년(세종 10) 호조에서 사창을 촌락에 설치하고 정부에서 원곡을 대부하도록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1444년에는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집현전에서 연구하게 했으나 실시되지는 못했다. 그 후 조선 말기 고종 흥선대원군때에 농민 항쟁의 대응책으로 다시 사창제가 제기되어 1866년(고종 3) 사창절목을 마련하고 사환제(社還制)를 시행했다.

## 10. ④

박스안은 일제 침략기때 ‘조선태형령’(일제가 조선인에게 징역·구류 및 벌금형 대신에 태형을 가하게 한 법률)에 대한 것이다.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13호로 공포·시행되어,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일제는 행형비의 절약과 감옥의 구금밀도 완화를 이유로 태형제도를 계속 유지했다. 3·1운동 이후 비등한 여론과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총독의 기만적인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 4월 1일 폐지되었다. (시행기간 1912부터 1920년)

④의 대한광복군정부는 1914년 9월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이종호, 정재관 등이 설립을 주도 하였다. 이 단체의 설립에는 다음과 같다.  
1914년은 러일전쟁 10주년이 되는 해로, 러시아에서는 러일전쟁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개전설이 나돌았다. 이에 발 맞추어 권업회는 시베리아와 만주, 미주에 널리 퍼져 있는 무장력을 갖춘 각 독립운동 단체를 모아 독립전쟁을 구현할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 11. ①

박스안은 통일 신라의 말기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장군 또는 성주라 칭하면서 각지에서 독자적 세력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지방의 세력을 호족이라 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지배층 내부에서는 권력쟁탈전이 끊이지 않았고 지방에서는 지배층의 수탈과 자연재해로 농토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종과 애노 등은 사벌주를 근거지로 하여 반기를 든 세력으로 신라 정부에 정식으로 반기를 든 첫 사례로 기록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889년 재정이 궁핍해져 지방에 대해 조세를 독촉하자 전국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한다. 이 '도적'은 신라 정부와 지배층에 대한 저항세력을 말한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은 사벌주를 근거지로 하여 반기를 들었다. 이에 진성여왕은 나마 영기(令奇)에게 명령하여 이들을 토벌하도록 시켰는데, 영기는 겁을 먹고 원종과 애노의 진영에 접근하지도 못했고, 촌주 우련(祐連)이 싸우다 죽었다. 이에 여왕은 영기를 참수하고 10여 세 된 우련의 아들에게 촌주의 지위를 잇게 했다.

② 권문세족은 고려말의 정치 세력

③ 삼정의 문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 말기 세도정치 기간에 극심

④ 고구려 진대법이야기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국상(國相) 을파소(乙巴素)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펴나가던 중 194년(고국천왕 16)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크게 상하여 백성이 굶주리므로 창고를 열어 미곡을 나누어주었다.

## 12. ③

1882년(고종 19) 6월 9일 훈국병(訓局兵)들의 군료분쟁(軍料紛爭)에서 발단해 고종 친정 이후 실각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된 정변(政變)이다. 이는 단순

한 신식군과 구식군의 싸움이 아니고, 당시 정부의 개화 정책의 반발로 인한 하층민의 저항이라 볼 수 있다.

**13.②**

박스안에 ‘공.사 노비제도 폐지’라는 말을 보고 갑오 1차 개혁을 알았다. (1894년)

②의 독립협회는 1896년의 일로써 시대 전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 (영향을 받았다니 ... 말이 안됨)

**14. ④**

공주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은 ‘무령왕릉’이다. ‘공주’라는 말을 보고 금방 알았다. 무덤의 주인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를 말하니까 ④를 골라야 한다. 무령왕릉은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다. 무덤의 내부는 벽돌 무덤으로, 중국 남조와의 교류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백제 제25대 왕 무령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에 왕족을 파견하여 22담로를 설치하였다.

**15. ②**

박스안에 내용은 신채호가 쓴 조선사연구초의 묘청의 난을 극찬한 내용의 일부이다. 여기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저지하고 싸웠던 사람은 김부식이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저술자 이다.

**16. ③**

최우의 집권기(1219-1249)이자, 몽고 항쟁기이다. 김준의 집권은 (1258-1268) 고려 인종 때 최윤의(崔允儀) 등 17명이 왕명으로 고금의 예의를 수집·고증하여 50권으로 엮은 전례서(典禮書)가 상정고금예문이다. 정확한 시기는 말하기 어려우나 그 대작(代作)을 명한 최이가 진양후에 책봉된 것이 1234년(고종 21)이고, 대작한 이규보는 1241년에 죽었으므로 그 사이에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17.②** 강희맹의 금양잡록(1492)은 조선 성종때이다.

박스안에 내용은 세종때의 달력 칠정산의 내용이다. 세종이 이와 같이 시간과 날짜 계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왕이 종묘사직과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많은 백성들 앞에서 국가 행사에 있어 달이 뜨는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는 등.... 당시 이것을 백성들은 임금이 부덕하다라고 여겼으며.... 이에 곤란을 겪은 세종은 시간에 관심과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이어 명나라의 대통력을 사용하다가 세종 때 정흠지, 정초,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이를 추산하고 연구하여 그 묘리를 터득하게 했으며, 명나라 대통력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칠정산 내편을 만들게 했다. 또한 이순지, 김담에게 명하여 명의 회회력법을 연구하고 정돈하여 칠정산 외편을 편찬하도록 하여 칠정산 내·외편은 시작된 지 10년 만인 1442년 모두 완성되었다.

**18. ②**

박스안에 내용은 조선후기 신분제도가 문란해지고 신분간의 이동이 활발한 시기이다. 가장 근급한 것을 찾으면 ②를 볼 수 있다. ②는 정조때의 일이다. ①③은 고려시대이다.

**19. ③**

- ㉠ 1925
- ㉡ 1926
- ㉢ 1929
- ㉣ 1923
- ㉤-㉠-㉡-㉢

**20. ②**

박스안은 남인

- ① 북인 ③ 서인 ④ 소론